

‘그린’ 앞서가는 광주·전남

광주서 만든 승용 전기차 첫 선

‘탑알앤디’ 내달 신차발표

광주서 만든 승용 전기차 2일 첫 선을 보인다. 차명은 ‘iPlug(아이플러그·사진)’. 전기차 개발의 리더 ‘탑알앤디’가 개발했다.



광주 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인 탑알앤디는 26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4인승 저속전기차 ‘iPlug’를 개발, 다음달 2일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신차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휠모터를 적용했다. 인휠모터는 연비 효율을 높인 최신기술이다.

‘iPlug’는 Information, Innovation, Intelligence, Internet 등 4개의 I가 모인 것을 형상화했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이 전기차는 국내 4인승 차량 중 가장 작아(전장 3150mm·전폭 1595mm·전고 1500mm) 한 번 충전으로 80~110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은 60km 정도다. 220v 가정용 전력으로 충전하며,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25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다. 한달 운영비는 1만~3만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양산과 판매는 내년 7~8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도시주행에 최적화된 근거리용 저속전기차(NEV)인 ‘iPlug’는 NEV 최초로 신개념 단단 변속기를 탑재했고 전기차 전용타이어와 차량·모터·바퀴가 일체형인

인휠모터를 적용했다. 인휠모터는 연비 효율을 높인 최신기술이다.

이 전기차는 국내 4인승 차량 중 가장 작아(전장 3150mm·전폭 1595mm·전고 1500mm) 한 번 충전으로 80~110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은 60km 정도다. 220v 가정용 전력으로 충전하며,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25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다. 한달 운영비는 1만~3만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양산과 판매는 내년 7~8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순천 마그네슘 자전거 양산 돌입

무게 10.5kg 50만원대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마그네슘 자전거가 국내 최초로 순천에서 양산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순천 해룡산단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에서 마그네슘 자전거 시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마그네슘 자전거 시제품은 프레임, 브레이크암, 브레이크레버, 페달, 핸들스텝 등 5종의 부품에 마그네슘 소재가 들어가 무게가 10.5kg로 가볍고 가격은 약 50만원대다.

시제품을 생산한 (주)바이칸 최윤호 대표는 “자전거 부품 70% 이상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앞으로 국내 판매는 물론 유럽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중 가장 가볍고 단단해 자동차와 항공기 등 수송기기 및 레저스포츠 경량화에 필수적인 소재로 각광받고

전남도는 30일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자전거 동호인 5000여명이 참석하는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폐막식 행사에서 국산 마그네슘 경량 자전거 시승식 및 전시회를 갖는다. /정필수기자 bungy@



“너무 추워요” 한파가 급습한 26일 오전 초등학교생들이 소매 속에 손을 숨긴 채 잔뜩 움크리며 등교하고 있다. 이날 광주 체감온도가 0.9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 1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27일 일부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의원들 예산 死鬪하라

광주·전남 중요 국책사업비 죄다 누락 여수엑스포·F1대회 이대론 큰 차질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여수세계박람회와 F1(포뮬러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등 누락된 광주·전남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이들 현안은 모두 장기 계속사업으로, 그 규모도 큰만큼 국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 출신 고위공직자 등 지역 정치권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비 챙기기 전담’에 나설 작정이다. 우선 16만 관중이 몰린 올해 F1 대회의 여세를 몰아 내년 대회 운영비(680억) 중 30%인 2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이다. 첫 대회가 세계적인 관심 속에 치

러진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또 앞서 정부가 부담기로 했던 경주장 건설비 880억원 중 352억원도 서둘러 지급해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련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예산도 시급하다. 박람회 SOC 예산의 경우 당초 요청했던 1조9559억원 가운데 1조5875억원만 반영되면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전주~광양 고속도로(2627억원 요청·432억 미반영) ▲목포~광양 고속도로(3905억원 요청·1600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3000억 요청·1000억원) ▲여수시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 확장(236억) 등은 필수적

인 사업이다. 광주시도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등 10개 사업 1505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CT연구원 건립(42억원)과 야구경기장 건립(100억원)이 핵심 현안이다.

CT연구원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광주 유지를 확정짓겠다는 복안으로, 이 사업에는 모두 1211억원이 필요하다. 1000억원이 필요한 야구경기장은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특히 모두 48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연구개발(R&D)특구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안에 50억원만 반영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누락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치밀한 논리개발과 설득 작업으로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김지혜 기자 chadoll@

광주 고교생 학원교습 내년부터 밤10시 제한

시의회 조례안 의결

내년 3월1일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학원교습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광주시의회는 26일 오후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현재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돼 있는 고등학교 학원교습 시간대를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새벽 5시~밤 10시까지, 고

등학생은 새벽 5시~자정까지로 구분해 제한됐다.

이날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광주학원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음성 고액과외를 부추길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되면 야간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박탈시키는 시간제한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가 잇따라 정회되고 오전에 처리하기로 한 조례안이 오후 3시가 넘어 서야 의결되는 등 진통을 빚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등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교습 시간대를 밤 10시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등 6곳 오늘 재보선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와 곡성군의 회가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27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관련기사 5면〉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광주 서구 관내 67개 투표소에서, 곡성군의 회가 선거구(곡성읍·오곡면·목사동면·죽곡면·고달면)는 8개 투표소에서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2곳(광주 서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1곳(경남 거창군 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부산 사상구 나·라 선거구,

전남 곡성군 가 선거구) 등 6곳에서 치러진다.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민주당 김선욱 후보와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중식·박규자 후보 등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곡성군의 회가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무소속 조길훈·정호범·고구주·김지문 후보 등 5명이 기초의원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락 윤곽은 밤 10시를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문고 신입생모집

- 대한민국 최고의 선배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목고
- 전교생 수능 최첨단 명문고 기숙사 신축
- 보내 특목고 장학금 제도
- 2009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영리대학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문의 (062)605-1115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세계인의 눈과 귀를 한데 모았던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릴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초유의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해 전 세계 200여국 6억명의 인구가 TV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전라남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관람객들께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개최될 2011 F1 대회를 잘 준비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큰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모든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The F1 FORMULA 1 Logo, F1, FORMULA 1,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KOREAN GRAND PRIX and related marks are trade 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ll rights reserved.

2011 F1대회 일정 : 2011. 10. 14(금) ~ 16(일)